총화종 "자비 실천 수행 종단으로"

4월 15일 창종 67주년 법회
혜각 스님 "정법 기둥 세울 것"
1회 총화인권상에 곽두준 회장

영동 실상사=유재상 충청지사장



대한불교총화종이 4월 15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설선당에서 '제67주년 창종 기념 대법회 및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이 창종 67주년을 맞아 정법 수호와 전법 도생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총화종은 4월 15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설선당에서 제67주년 창종 기념 대법회 및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무원장 혜각 스님과 종회의장 법만 스님, 선원장 지광 스님, 복지원장 조향 스님, 교육원장 본원 스님을 비롯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 안진삼 인권위 자문위원, 곽두준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장, 심천 국악기 장인, 유재업 카본플레이 대표, 정미숙 양강면장, 김재화 총화종 전국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법어에서 "창종 67주년은 중생의 마음속 자성불을 깨우고 정법의 기둥을 세우는 불사"라며 "종단의 길은 명예나 권위가 아니라 부처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나를 비우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고 설했다.

종회의장 법만 스님은 '미래 비전 선언'을 통해 "창종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수행 종단,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에 응답하는 자비실천 종단, 디지털시대에 대응하는 포교 혁신 종단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67년의 동행을 바탕으로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시대 변화에 맞는 포교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축사에서 "총화종이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자비를 사회에 실천하는 첫 걸음으로 인권상을 제정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법이 일상이 되는 수행 종단, 사회적 고통에 응답하는 자비 종단이라는 비전은 불교계 전체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총화종의 여정에 현대불교신문도 도반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미숙 양강면장은 "지역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 온 총화종에 감사드린다"며 "인권상 시상식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 대중은 교육원장 본원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차별의 벽을 허물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회의장 법만 스님과 교육원장 본원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에서는 곽두준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화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와 인권 시정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곽두준 회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과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법 수호와 전법도생을 기치로 1960년 창종한 총화종은 2019년 영동 실상사를 총본산으로 종단 체계를 정비해 왔다.

총화종은 "창종 67주년을 계기로 자비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엄불교대학 38기 입학식

4월 11일, 화엄학림원 30기 입학식도



전북 지역 불교 인재 양성을 선도해 온 화엄불교대학(학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이 불교대학 제38기와 화엄학림원 제30기 입학식을 열고 54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4월 11일 전북불교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서는 불교대학 32명, 학림원 22명 등 54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학장 화평 스님은 입학 식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1989년 이사장이셨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원력을 받들어 설립됐다"며 "여러분은 오늘 그 깊은 역사와 원력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움에는 끝이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을 어떻게 이웃에게 되돌려줄 것인지 고민하는 회향"이라며 "열심히 정진해 자비로운 리더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입생 대표로 나선 홍광문 회장은 선서를 통해 성실한 수행과 정진을 다짐했다. 신입생들은 "전통 있는 화엄불교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스님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화사 청소년 지킴이 4기 출범

4월 10일 중학생 150명 동참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팔공산 생태계를 지키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하는 '팔공산 청소년 지킴이 발대식'에 중학생 150명이 동참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동화사는 4월 10일 통일기원대전에서 대구 지역 중학생 150여 명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4기 팔공산 청소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사진〉

참가자들은 앞으로 팔공산 일대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찰 문화 체험 △봉사활동 △명상 및 수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 정신을 체득하게 된다.

지도법사 동우 스님은 "팔공산을 지키는 일은 자연 보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수행의 과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건강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부주지 해관 스님은 "자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연에서 와서 머물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건강한 자연이 곧 우리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대원 대종사 '오등회원' 강설 10년 대장정 입재

4월 11일 학림사 오등선원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강의


공주 학림사는 4월 11일 오등선원 설법전 3층에서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의 '오등회원 보설'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상에 오른 대원 스님.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의 '오등회원' 강설의 10년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공주 학림사(주지 경담 스님)는 4월 11일 오등선원 설법전 3층에서 대원 스님의 '오등회원 보설'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석은 선종사의 핵심 문헌인 '오등회원'을 대원 스님이 직접 강설하는 자리로, 매주 토요일 8시에 진행된다.

주지 경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오등회원'이라는 책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옛 도인들의 깨달음 이야기를 편안하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오늘 시작되는 이 법석이 끝까지 이어지는 정진의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등선원 선원장 보관 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 선(禪)이며, 그 선의 맥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등회원'"이라며 "이 책은 우리 자신을 우주의 주인공으로 일깨우는 가르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문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홍익 학림사 신도회 수석총회장은 "오등회원은 선문의 정수를 담은 귀중한 법보"라며 "이번 강설이 수행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봉준 최성문 오등회장은 "오등회원 강설을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인연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법석을 통해 수행의 길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도 오등회 부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며 이 법석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법상에 오른 대원 스님은 "오등회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어진 법등"이라며 "문자를 좇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비추어 본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설했다. 이어 "이 법문이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학림사 회주 정암 진호 종사, 오등선원 선원장 보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황정아·진선미 국회의원, 오등시민선원 운영위원장 한복룡 교수, 조정연 충남대 교수불자회장, 오영달 전 충남대 교수불자회장 등 오등회원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공주 학림사=유재상 충청지사장

경산 제석사, 사라탑 낙성

원효 스님 1409주기 기념



경산 제석사(주지 혜능 스님)가 4월 11일 '사라탑(娑羅塔)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낙성은 원효 스님 탄신 1409주기를 기념해 추진된 조탑 불사의 결실이다.

원효 스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제석사는 옛 사라사(裟羅寺)로 불렸던 도량으로 '사라탑'이란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다. 혜능 스님은 2018년 14대 주지로 부임한 이후 '원효 성사 탄생지 성역화 불사'를 발원하고 조탑 불사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조성된 사라탑은 경주 덕동댐 수몰지역에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고선사삼층석탑을 참고해 제작됐다. 원탑의 절반 규모인 가로·세로 약 3m, 높이 약 5m 크기로 경주 남산석을 사용해 조성됐다.

주지 혜능 스님은 "천일기도와 원효로드 순례를 통해 모아진 원력이 오늘 사라탑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잘 배어나는 수행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종교 간의 모든 선을 넘어 많은 이들이 마음 수행을 하는 도량으로 가꿔가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성준무산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4월 10일 속초시청서
대학생 장학금 3억원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설립한 성준무산장학재단이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이어가며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성준무산장학재단(이사장 지혜 스님·신흥사 주지)은 4월 10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속초·고성·인제·양양 등 설악권 대학생 240명에게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복지재단 이사장 향성 스님, 화암사 주지 대현 스님, 신흥사 노전 서원 스님, 명주사 주지 각일 스님, 원각사 주지 설혜 스님, 건봉사 주지 설주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이병선 속초시장, 방원욱 속초시의회 의장,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장학금은 종교와 성적에 관계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지역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혜 스님은 "성준·무산 두 큰스님의 가르침은 '종교는 달라도 사회는 한 가족'이라는 데 있다"며 "인재 양성에 어떠한 구분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이어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번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닌 응원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민의 마음을 모아 깊이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이동격 강원지사장

광주 관음사, 충장중서 '분식 나눔'

4월 13일 자비신행회 함께
떡볶이·튀김 300인분 제공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 스님)가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자리를 마련했다.

관음사는 4월 13일 (사)자비신행회와 함께 광주 충장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분식 가게'를 열고 전교생과 교직원 300여 명에게 떡볶이와 튀김, 음료로 구성된 분식 세트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소운 스님과 관음사 자원봉사단,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참여해 직접 현장에서 조리와 배식을 통해 학생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충장중학교가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분리배출 캠페인을 병행했다. 다회용기를 활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운 스님은 "지금의 청소년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라며 "잠시라도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스스로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는 먹거리 나눔과 환경 교육을 함께 실천한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이 다회용기 사용과 분리배출을 직접 체험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선복지재단·세스코, 업무협약

취약계층 방역 지원키로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이사장 호산 스님·이하 봉선복지재단)은 4월 9일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서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 복지기관들과 방역·방제 업체인 ㈜세스코와 '취약계층 방역·방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봉선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을 주축으로 구리·남양주시의 노인·장애인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봉선복지재단 운영위원장 법륜 스님은 이사장 호산 스님을 대신한 인사말에서 "각 기관과 기업, 재단의 역할이 모여 시너지를 발휘할 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